



KIA 김도현 “후반기엔 더 강하게 돌아오겠다”

올해 처음 선발진에
합류한 KIA 타이
거즈 김도현이
제 몸에 맞는 옷
을 입은 듯 하다.
그는 전반기 동안 안
정적인 투구로 정상급 활약
을 펼쳐 윤석민 이후 KIA의
'새로운 우완 에이스'라는 평
가를 받고 있다.

김도현은 지난 5일 광주-기
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 등
판해 7이닝 동안 25명의 타자를 상대
로 3피안타 무실점 2사사구 1탈삼진
의 호투를 펼치며 전반기 마지막 경
기를 장식했다.

이날 KIA는 13-0 대승을 거두
며 단독 2위에 올랐고, 승리의 중심
에는 김도현이 있었다.

그는 1회와 2회 모두 1루 주자
가 있는 상황에서 땅볼을 유도해
더블플레이로 위기를 넘기고, 3

선발 첫 해 90.2이닝·평균자책 3.18
경기당 평균 5.2이닝·8회 퀄리티
윤석민 이후 팀 내 '우완 에이스'
향후 목표 “타이거즈 대표 선수”



회부터 5회까지는 모두
삼자범퇴로 완벽한 피
칭을 이어갔다.

6회에는 안타하나를
허용했지만 득점권은 허용하지 않았고, 7
회에는 2루타를 내줬지만 후속타자들을
땅볼-땅볼-뜬공으로 요리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필승조 전상현·조상우·정해
영이 연투 제한으로 결장한 상황에서 김
도현의 호투는 더욱 빛났다. 그의 7이닝
무실점 투구에 힘입은 KIA는 대승을 거
둘 수 있었다.

전반기 16경기에 선발로 나선 그는 4승
3패, 90.2이닝, 평균자책점 3.18와 8차례
의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실점 이
하)를 기록했다.

이는 팀 내에서는 제임스 네일
(2.53), 아담 올러(3.03)에 이어 세 번째
로 낮은 평균자책이며, 국내 투수 전체로
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이다. 또 경
기당 평균 5.2이닝을 책임지며 양현종
(5이닝), 윤영철(3.4이닝)보다도 안정적
인 운영을 보였다. 이 같은 활약으로 팀 내
에서는 윤석민 이후 새로운 우완 에이스
가 나타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도현은 시즌 초 황동화와의 경쟁에서
5선발 자리를 따낸 뒤 전반기 내내 부상 없
이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다.

이에 대해 이범호 감독은 “시즌 초반
(김)도현이가 등판하는 날에 하필 타자들
이 점수도 많이 내주지 못했음에도 도현
이가 7이닝 던질 때도 있었고 웬만해선 퀄
리티스타트로 잘 던져주고 해서 체력적으
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며 “실력이 충분
히 무한대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더 욕심내고 승을 많이 올
릴 수 있는 투수가 됐으면 좋겠다. 도현이
가 잘 던져줘서 전반기를 잘 달려와준 것
에 고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도현은 선발진으로 합류한 첫 전반기
활약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도 경기
초반부터 타선이 많은 점수를 내줬고 이
날 불펜들도 후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에
최대한 길게 던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
텼었다”며 “로테이션을 한 번도 거르지 않
고 싶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한 번
결렸던 점에서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전반기
를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만족한다”고
웃었다.

김도현의 향후 목표는 팀의 대표선수로
우뚝 서는 것이다. 그는 “KIA에서 계속
있으면서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
다”면서 “후반기엔 더 잘 준비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차근차근 한 경기
한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큰 목
표를 가지고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데뷔 첫 선발 시즌부터 꾸준한 투구로
존재감을 드러낸 김도현이 후반기에도 상
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KIA 최형우 부상… 올스타 지명타자, 김호령 대체 출전

문현빈 올스타 확정에 감독 추천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허벅지 부상으로
회복기간을 갖게 되자 올스타전 빈자
리를 외야수 김호령이 메꾼다.

10일 KIA 관계자에 따르면 최형우가
전날 한마음 정형외과를 포함해 병원 2곳
에서 초음파 검진을 실시한 결과 우측 햄
스트링 부종 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형우는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까지 치료에 집중한 뒤 후반기 복귀
할 예정이다.

앞서 최형우는 지난 8일 대전 한화생명
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에

서 3회초 공격 도중 1루에서 3루까지 전
력질주한 뒤 대주자 이창진으로 교체됐
다.

당시 최형우가 3루로 향하는 주루 과정
에서 오른쪽 허벅지 뒷 근육에 이상을 느
껴 통증을 호소했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교체했다는 것이 KIA 관계자의 설명이
다.

올스타 베스트12 지명타자로 뽑힌 최
형우의 빈자리를 채울 다음 선수로는 팬·
선수단 투표 나눔 올스타 지명타자 2위 한
화 이글스 문현빈이 지목됐으나 이미 감독
추천 선수로 올스타전 출장이 확정됐
기 때문에 김호령이 새로운 감독 추천 선
수로 박탁됐다.

민현기 기자



한국의 장승기가 지난 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여자부 1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 0-1로 뒤진 전반 추가시간 동점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김체량, 아시아유소년역도 우승

세계유소년 신기록

광주체고 김체량(17)이 세계유소년 신
기록을 세우며 아시아유소년역도선수권
대회 여자 최중량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체량은 지난 9일(한국시간) 카자흐
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2025 아시아유
소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77kg 이상급
경기에서 인상 104kg, 용상 145kg, 합계
249kg을 기록했다.

김체량은 용상과 합계에서 국제역도연
맹(IWF) 기준기록을 넘어선 세계유소년
신기록을 작성했다.

앞서 IWF는 올해 6월 체급 규정을 남
녀 10체급씩에서 8체급씩으로 조정하며
세계 기준 기록을 정했다. 김체량이 출전
한 여자 최중량급 기준기록은 인상 105
kg, 용상 140kg, 합계 244kg이다.

이날 김체량은 용상에서 145kg을 성공
하며 기준기록을 5kg 초과했고, 합계 기록
역시 5kg 높게 기록하며 새 역사를 썼다.

김체량은 인상에서 110kg을 들어 올린
중국의 리쉐에 이어 2위에 그쳤지만, 용
상에서 리쉐보다 11kg이나 더 들어 올리



광주체고 김체량. 아시아역도연맹 페이스북 캡처

며 역전에 성공했다. 결국 합계에서도 리
쉐(244kg)를 앞선 249kg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김체량은 인상과 용상 모두 1차부
터 3차 시기까지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성
공하며 ‘클린 시트’ 경기를 펼쳤다.

아시아역도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
서는 올림픽과 달리 인상, 용상, 합계 각
부분별로 메달이 수여됐으며, 김체량은
금메달 2개(용상·합계)와 은메달 1개(인
상)를 목에 걸었다.

최동환 기자

‘지소연 극장골’ 한국, 동아시아안컵 1차전서 중국과 2-2 무승부

장승기·지소연 연속 동점골 13일 일본과 2차전 맞대결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2025 동아시아
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
안컵) 첫 경기에서 지소연의 극적인 동점
골에 힘입어 중국과 극적으로 비겼다.

한국은 지난 9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에서 열린 중국과의 여자부 1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던진 지소연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극적인 2-2 무승부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우승 도전에 첫 단추를 무패로 시작하게
됐다.

이날 한국은 전유경(물테), 지소연(시

애틀 레인)을 투입으로, 문은주(KSP
) , 강채림(수원FC) 등 공격진을 전방에
배치하며 적극적으로 경기에 나섰다. 그
러나 전반 15분 수비진의 볼 처리 실수로
중국의 야오웨이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19분 전유경의 슈팅이 골문을 향
했지만 상대 수비에 막히고, 이어 전유경
이 부상으로 전반 23분 교체되는 악재까
지 겹치며 한국은 쉽지 않은 경기를 이어
갔다.

전반 추가시간 한국은 동점골을 뽑아냈
다. 장승기(한수원)가 문은주의 크로스를
강한 왼발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갈랐
다.

한국은 후반 들어 거칠어진 중국의 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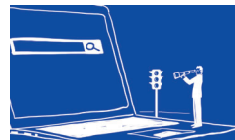
레이에 여러 차례 선수들이 넘어졌고, 결
국 후반 22분 사오쑤친의 헤더로 다시 실
점하며 1-2로 뒤졌다.

한국은 후반 35분 지소연이 침투 슛으
로 한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
로 무효 처리됐다.

패색이 짙어지던 후반 추가시간, 한국
은 베팅 끝에서 지소연이 해결사로 나섰
다. 중원에서 공을 이어받은 지소연은 골
문 오른쪽을 향해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
고, 이 볼은 그대로 중국 골문을 흔들었
다. ‘지메시’라는 별명답게 팀을 패배 위
기에서 구해냈다.

이날 무승부를 거둔 한국은 오는 13일
일본과 2차전을 치른다.

최동환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